

# 배터리 재활용 친환경선박 개발 추진

### 도, 이달 중 추진위 출범 후 각종 사업 등 용역 10t 미만 등 어선 적용 여부에 대한 실증 연구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이 실무협의를 마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친환경선박은 전기에너지 공급원으로 중고 배터리를 결합해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 10t 미만의 어선 등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배터리의 최고 출력은 신품 배터리의 9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그간 제주자치도는 전기소형선박추진실무협의를 통해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전기선박 기술 개발·

보급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등 실무 중심의 논의를 이어왔다.

이어 실무협의체 운영종료에 따라 이달 중 제주형 친환경선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실증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추진위원회는 제주형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 제도개선, 산업육성, 보급확산 등 전 주기 정책 실현을 위한 종합 자원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위원회는 기술정책 분야와 기반육성 분야로 나뉘며, 기술정책 분야에서는 개발·보급 정책 발굴, 제도개선 및 수립, 국제행사 및 탄소중립 모델 발굴 등이 이뤄진다. 기반

육성 분야에서는 산업기반 및 거점 조성, 어항만 개발계획 및 충전시설 구축, 민·관·산·학 협력 및 유치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 일환으로 도는 올해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형 친환경 선박의 실증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개발 등 과제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기존 제주에 등록된 전체 어선 중 80% 가량이 10t미만의 연안어선이기 때문에 개발이 성공해 실제로 상용화될 경우 제주 중심의 해양수산 분야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대표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규선박에 재활용 배터리가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어 종합계획과 기초연구개발 등 육성 과제를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의 진료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가 저소득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해 진료차 공·항만 이용에 따른 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혈우병이나 암, 뇌·심혈관질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 진료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시는 이들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의 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는 항공료나 선박료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의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바람을 타고 항공을 즐-힐 1일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카이트서퍼들이 바람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시민 건강’ 중심 시정방향 비전 제시

### 서귀포시, 민생복지·문화융성·청정환경 등

서귀포시가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 아래 4개 시정 방침 및 7개 추진전략을 1일 발표했다.

시는 행복한 민생복지, 든든한 산업 육성, 다양한 문화 융성, 깨끗한 청정환경을 4개의 시정방침으로 설정했다. 또한 >열린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현장중심 공감시정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1차 산업 >서귀포다움’의 가치를 담은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모두가 함께 누리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청정도시 조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등 7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백금탁기자

## 2022 제주애 빠지다 13 레드향 농사짓는 김상수씨

# IT 기업 다니던 직장인에서 제주로 귀농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레드향 농사를 짓는 김상수(63)씨. 거제도가 고향으로 부산과 서울 소재 IT 관련 회사에 다니던 그는 은퇴시기를 조금 앞두고 50대 중반에 제주로 귀농했다. 정년을 다 채워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은퇴후 도시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편하니 귀농해 농사를 지으며 연금을 받아보자는 생각이 제주로 이주를 결심한 계기가 됐다.



IT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제주로 귀농한 김상수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레드향을 발효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부부가 함께 제주로 이주한 그는 도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귀농귀촌교육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녔다. 다행히 농사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얻었고,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지금도 교육은 챙겨받는다. 이주한 이듬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저리의 용자금을 보태 레드향 하우스시설을 갖춘 3300㎡의 땅을 구입했고, 이후 하우스를 더 넓혀 현재 8200㎡에서 레드향을 무가운으로 재배중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게 관건으로 농약 방제와 관수 타이머 등을 기계화해 일손을 단다는 그의 농사법은 기성성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향해 있다. 바로 ‘발효농법’인데 “나무가 흡수하기 좋게 발효액을 만들어 물을 관주할 때 함께 살포하면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레드향의 당도를 높여주고 유향 등 기능성이 함유된 ‘갈집맛 나는’ 레드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발효농법도 키운 레드향은 저장성도 더 뛰어나다고 했다. 그가 기능성 레드향에 주목한 것은 3년여 전부터 서귀포시 남원·표선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키위,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25농가로 구성된 발효농법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해 함께 교육받

## “농사 지어 연금 받아보자”는 생각에 이른 은퇴 발효농법으로 레드향 재배 유향농산물 인증받아 “뜻맞는 농업인들과 기능성 과일로 차별화할 것”

고 연구를 진행하면서다. “회원들이 전정에서 농약 방제까지 발효농법 매뉴얼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능성 농산물을 만들자는 게 발효농법연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연구회에서 액비 특허를 받고, 올해 발효액비공장 준공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향 등 기능성 성분이 사람의 몸에 좋은지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알테니, 고품질의 기능성 감귤이 시장에서 반응할 것이란 게 그를 포함한 발효농법연구회원들의 생각이다.

다만 감귤 품목에서 보듯 레드향도 소비층이 늘어나면 재배농가도 늘어날 테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기능성 유향을 더 뛰어나다고 했다. 그가 기능성 레드향에 주목한 것은 3년여 전부터 서귀포시 남원·표선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키위,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25농가로 구성된 발효농법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해 함께 교육받

대적으로 높은 열과열과 심한 해거리를 줄이기 위한 나무의 생리 연구도 지속하면서 발효농법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1년치 발효액을 만들어 저온저장고에 두고 사용한다는 그는 한국발효농업협회로부터 지난해 12월 ‘특허 기술로 재배한 유향 농산물(레드향)’ 인증도 받았다. 인증은 1년 단위로 받아 판매할 때 첨부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다.

이제 한라봉 재배에 대해 눈을 떴고, 판로에도 큰 문제가 없어 제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그지만 ‘좀 더 일찍 귀농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귀농을 준비중인 이들에게 “3년 정도는 그 분야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맛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농사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페르카 효과**

-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호소당밀

-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 용량 : 20kg

발근제

-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하하농법으로 대박나는 농사를!!

**하하농법 이달(8월)의 농사 메모 하하농법**

**하하농법이란** 희토류의 H와 아미노산의 A의 융합으로 21세기 최첨단 농법을 말한다

**키 위**

- 건물중과 비대를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 + 희토류F + 액시덤 관주
- 과일을 단단하고 무르지 않게 글루칼(포도당 칼슘) 살포

**만감류**

- 과일 비대를 위해 뿌리원 + 희토류F 관주
- 추비 이노페스 1,000평(3,300㎡) 1포 시비 ○ 글루칼(포도당 칼슘) 살포

**마늘**

- 종구소독은 키토산(20)25말 침지하거나 뿌려준다
- 밀거름은 “해찬그린왕” 퇴비살포 + 부스타팜(미생물) 100말 1,000평(3,300㎡) 관주

**감 자**

- 밀거름은 “해찬유박골드”살포 + 부스타팜(미생물) 100말 1,000평(3,300㎡) 관주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